

2. 마지막 일들 - 20.

산 소망 (LIVING HOPE)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히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 23:17-18)

* * *

1.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웃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곳에는 죽은 자를 애통하며 슬퍼하는 소리로 가득하다. 아마도 함께 살아온 세월에 대한 그리움이나 땅에서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눈물을 자아내는 이유일 것이다.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는 이런 슬픔이 밀려오는 것을 막아낼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슬픔은 세상과는 다르다. 사도 바울은 세상이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앞에 두고 슬퍼하는 이유가 그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살전 4:13). 그들은 보이는 것에만 ‘소망’을 두고 살기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거기에다 소망을 둘 수도 없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랑하는 것을 잃는 것은 가슴 저리는 아픔이다.

그리스도인은 잠시 슬퍼하다가도 이내 눈물을 훔쳐낼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날에 부활로 재회하여 주와 함께 살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했으나 믿지 않고 죽은 이에 대해서도 애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전도하지 못한 죄책감에 빠지거나 슬픔에서 영영 헤어나오지 못하는 고통을 겪지 않는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이고, 이제는 죽은 자에 대한 슬픔보다 땅에 남겨진 자신의 생애에 대한 책임이 주 앞에서 더 생생한 현실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살전 4:13-18

땅의 모든 살아있는 자들의 소망이 참인지 아닌지는 죽음이라는 경계선이 분명하게 갈라놓는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잠언 10:28)고 했고,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을 꺼지리라”(잠 24:19-20)고 했다. 보이는 소망만을 품고 살았던 세상 사람은 생의 등불이 꺼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과 이별해야 한다. 사람이 죽음 너머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영혼 뿐이다. 돈을 소망으로 삼고 살다가 죽어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 그제서야 참 현실을 알고 아브라함을 향해 다급하게 간청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눅 16:27-

28). 부자는 음부의 고통에 처해서야 비로서 자기 형제들이 음부의 현실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이 오직 보이는 소망만을 좇아 살면서 이곳을 향해 오고 있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워 절규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고전 15:19)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이 세상의 삶을 소망으로 삼고 수고를 쏟고 있는지 모른다. 그들은 소유를 더 쌓아야 인생 성공이고 행복인 줄 안다. 하지만 사는 데 필요한 것은 ‘쌓은 재산’에서 나오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내려온다. 소유하고 있는 재물은 나누고 비워야 더 채움을 받을 수 있다. 계속 쌓기만 하면 모든 것을 많이 쌓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생에 종말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다(눅 12:20).

딤편 6:17-19 _____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소망을 소망으로 가질 수 없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늘에 간직된 것을 바라는 ‘산 소망(living hope)’으로 채우시기 때문이다(벧전 1:3-4).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땅의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잠시 정욕으로 미혹을 당했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거듭난 것이 아니다. 전자이든 후자이든 당하는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이다. 전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후자에게는 마지막 때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이 임한다(골 3:1-6).

벧전 1:3-4 _____

Q. 이 세상 누구보다도 바라는 것을 더 많이 이루어도 왜 끝내는 무익하게 되는가?

전 2:9-11 _____

* * *

2.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시 62:5).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롬 15:13)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방식은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이다. 우리가 당한 상황이 최악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이기에 사람에게 소망을 일으킨다. 그래서 고난에 처해 있던 시편 기자는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며 이렇게 고백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시 119:49).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다. 그의 믿음은 그에게서 나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킨 소망에서 비롯되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열방의 조상이

될 것을 걱정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일으켰고, 이 소망이 그에게 믿음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하나님은 계획하지 않으신 것을 말씀하시는 일이 없다(사 55:11).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걱정하신 대로 이뤄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 소망과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다(엡 1:11-14).

롬 4:18

복음이 일으키는 소망은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필수요소이기도 하다. 복음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화평이 만물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하신다는 것이다(골 1:19-23).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장래에 대해 성경이 선포하는 모든 복된 소식이 복음의 소망이다. 교회는 이 소망에 대한 확신과 사랑을 굳게 잡고 있어야 하고, 그리할 때 그리스도의 집이다. 교회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히 3:6; 벧전 3:15).

히 3:6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그 소망을 계속 품을 뿐 아니라 더욱더 그 소망을 넘치게 해 주시려고 우리의 믿음에 성령의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채워 주신다. 소망을 유지하고, 소망을 더 키워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시는 능력인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롬 15:13).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을 일으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미래와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렘 29:11). 그리고 이 ‘미래와 희망의 약속’이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쌓게 해 준다(골 1:5).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 수록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더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그 안에서 지혜를 깨닫는 것만이 확실한 장래를 보장받는 최고의 길임을 안다(잠 24:14-16). 그래서 말씀을 경청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도 소망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 이렇게 기도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시 119:116).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그 소망에 상응하는 응답을 해 주신다.

잠 24:14-16

Q. ‘소망의 하나님’을 어린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시 71:5, 17-18

* * *

3. 하나님은 ‘산 소망’을 품은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향한 ‘산 소망’으로 채워진 자이기에 그 소망은 한시적인 땅의 삶에서도 즐거움을 낳고, 환난 중에는 인내를 낳고, 일상에서는 지속적인 기도를 낳는다(롬 12:12). 성경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 [간다]”(히 6:19)라고 했다. 우리는 아직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미 우리의 영혼을 휘장 안의 하나님 지성소에 닻으로 정박시켜 놓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산 소망을 품은 그리스도인은 땅에서 살지만 영혼은 이미 ‘기도를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산 소망을 지닌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시인 ‘기도’는 어려운 처지에서 더 확실하게 나타난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딤후 5:5-6)고 했다. 형편이 피면 오락을 좇고 형편이 나빠지면 불평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이다. 참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워도, 평안해도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한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미 7:7-8).

Q. 어려운 형편이 기도로 이어질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목상이 참 기도를 낳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애 3:19-25 _____

* * *

기도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키는 소망을 기도하기보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주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경솔히 여기고 무엇이든 마음에 원하는 것은 모두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서 얻은 소망을 따라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얻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소망을 두고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